



朴 在 侃

(대한노인회 부설
노인문제연구소장)

1. 서 론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로의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은 최근 심리적인 고독과 소외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던 농촌사회에서는 노인을 포함한 확대가족이 한 울타리 안에서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였고, 또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러한 가족제도하에서 가부장(家父長)적인 권위를 누리며 아무런 불편없이 살아왔다. 그리고 유교의 전통문화를 배경으로 관습화된 사회규범은 인간의 노후생활을 정신적, 정서적으로 더욱 안정시켜 주는데 이바지 했다.

그런데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제한된 수입, 협소한 거주공간, 빈번한 거주이동, 그리고 부부중심의 생활양식 등은 노인들의 생활환경을 몹시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사회관념속에서 일생을 살아왔던 노인세대(老人世代)들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옛날과 같은 가정생활이나 자녀들에 의해서 부양받기를 기대하기가 점차 어려워져가고 있다.

오늘의 노인들은 지난날 그들이 청소년시절이 있을 때는 가정, 학교, 사회교육을 통해서 유교적 전통문화와 가치관을 심봉하는 교육을 받아왔고, 청장년시절에는 이러한 사회규범을 몸소 실천해왔을 뿐만 아니라, 장차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는 지난날 그들이 노부모에게 경노효

친(敬老孝親)했던 것과 동일한 성격의 봉양을 자녀들로부터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정작 노인세대로 접어들게 된 이들의 현실을 살펴보면 종전에 그들이 기대했던 가족구성형태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들이 당면한 고독 소외의식도 그만큼 클 수 밖에 없다.

2. 노후생활의 불안요인

오늘의 노인들은 가정에서 가사결정권과 경제권을 상실하는 현상이 증가되고 있고, 노부모부양기피현상이 아직은 사회문제화 할 단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식관념을 지닌 노부모와 서구식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젊은 세대가 같은 지붕밑에서 동거하는데서 오는 대화의 단절 또는 가치관의 차이라는 문제점이 있고, 젊은 주부들의 지휘항상으로 인해서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경우 노인들에게 심리적인 고통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사실이다.

이 외에도 노인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요인 중에는 인간 수명의 연장으로 자녀들은 역할상실의 노부모 부양기간이 장기화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는 생계 또는 의료비 지출 등에 있어서 자녀들에의 부담을 가중(加重)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노인들을 거주장소롭고 귀찮은 존재로 인식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노인들의 동별거현황을 조사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이미 우리 나라에서도 노인세대(老人世帶)는 19.8%이고, 딸 부부와 동거하는 비율도 3.5%, 며느리의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11.3%, 이를 합하면 34.6%에 달하는 많은 노인들이 가정생활에서 전통적인 가족구성형태와는 다소 상반되는 생활양식을 택하고 있었다. 노인문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이러한 유형의 노인들은 자녀 또는 국가로부터 물질적 또는 정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태가 종종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중 결혼한 장남과의 동거는 47.3%이고, 결혼한 차남, 삼남과의 동거는 18.3%로 나타났다. 노부모부양을 결혼한 장남이 책임지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이며, 195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관습 밑에서 90% 이상의 노인들이 장남 부양에 의존해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고유의 가족제도와 관습에서는 자녀 모두가 노부모 부양과 조상제사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 무거운 책임의 전부를 장남에게만 떠맡겼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장남은 노부모 부양과 조상제사를 책임지는 대가로 재산상속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이 부여되었고, 가족내의 지위도 다른 자녀들보다 매우 높았었다.

그런데 최근에 개정된 민법조항 중에는 재산상속에 있어서 모든 자녀에게 균등분배의 원칙이 채택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장남만이 노부모 부양을 해야 한다는 종래의 가치관도 붕괴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큰며느리는 노부모 부양을 나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논리(論理)를 전개하게 되고, 작은 며느리쪽에서는 전통적인 관습이 있는데 내가 왜 노부모 부양과 조상제사를 책임져야 하느냐고 서로 디루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과 가치관의 갈등 속에서 노부모 부양과 조상제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조상제사 노부모부양 등에 대한 전통적인 관습이 그대로 존속될 것으로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 빗나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한 노인들의 심경은 매우 착잡하고 불안할 수 밖에 없다.

3. 건강하고 싶어하는 욕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구조조사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를 물으면 많은 비율의 노인들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 같은 것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하거나, 또는 「이제 살대로 살았으니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답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노년심리학을 전공하는 서구(西歐)의 많은 심리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는 「인간은 연로할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과 생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해진다」고 했다. 특히 동양에서는 옛부터 불노상수(不老長壽)라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을 풀이해 보면 인간은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늙지 않는 상황하에서 장수를 누리고 싶다는 것이 노인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장수를 한다는 것은 인간 공통의 염원이기 때문에 노인들 중에는 건강유지 또는 장수하는데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되는 일은 될 수 있는대로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노인들 중에는 술, 담배, 코피 등의 분량을 줄이거나 아주 끊어 버리는 분들이 많고, 젊었을 때는 스포츠에 그리 관심이 없던 노인들이 체조, 축구, 테니스, 배트민턴, 줄넘기, 등산, 자전거타기, 조깅 등을 행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은 모두가 인간을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건강 또는 장수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최근 노인들 중에는 노인학교나 노인정을 여가활용장소로 이용하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오늘의 도시노인들은 역할상실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곳을 통하여 친구들을 사귀고 또한 그 친구들과 더불어 활동성 있는 여가프로그램, 즉 악수터에서 모이기, 조기청소, 교통정리, 유원지 정화사업 등을 하므로써 신체적인 건강관리와 정신적, 정서적인 「스트레스」 해소에 이바지해보려는 욕구가 반영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노인들의 건강증진은 노인들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가정이나 지역사회나 정부의 지원과 협조도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가정의 자녀들이 노부모님께 나들이를 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드린다면, 지역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 드리

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로서는 노인여가시설의 확충,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비의 지원 등을 통해서 노인단체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것 등이 바로 그런 것이다.

4.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장거나 바둑을 두며 소일할 수도 있고, 손자녀들을 보살핀 다든가 정원을 가꾸는 일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일이다. 때로는 선조어른들의 산소를 성묘한다거나 족보나 가승 같은 것을 정리해 두는 것은 노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종의 하나다.

노인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더욱 많다. 자연보호운동, 골목청소, 교통정리 등에 노인크림이 자진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이는 그들에게는 건강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젊은이들의 노인에 대한 경노심(敬老心)을 불러 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노인들은 그들이 오랜 세월을 통하여 터득한 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집안내에서 또는 노인 정회원들을 중심으로 용돈벌이 정도의 수입이라도 올릴 수 있는 일거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역할상실에서 오는 고독이나 소외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웃나라인 대만이나 일본 등에서 노인취업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런 나라에서 노인취업율이 높은 이유 중에는 산업화사회로의 전환이 우리나라보다 한 걸음 앞서 왔기 때문에 젊은 인력이 모자라는데도 그 원인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노인들의 자세 또는 의식구조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시청사무원, 정년퇴직을 한 후에 아파트나 도로청소 작업을 하는 예를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대만에서는 육군대령 출신 노인들이 대충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는 일을 하는 데도

본인 자신이나 일반사회에서 조금도 어색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가치관의 형성이 위 양국에서 노인취업율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젊음은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은 은퇴 후에 톡한 일을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자녀들도 노인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효도 또는 경노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노인들의 역할상실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전통적인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또한 그 장점을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는 안 되지만, 그 중에서도 시정 또는 개선해나가야 될 점은 과감하게 이를 바로잡아 나가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오늘의 노인들이 자녀 또는 젊은이들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거나 안방에 가만히 앉아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러한 것도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가정일에 공동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더욱 바라고 있다. 지난날에는 노인들이 가부장적 위치에서 가사결정권(家事決定權)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오늘의 노인들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인도 가족구성원의 일원인 이상 가사결정권에 공동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정도는 부여되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사회적으로는 노인들이 더욱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년제를 살펴보면 어떤 직종에 있어서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55세 전후에 직장을 물러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인간수명은 날이 갈수록 연장되고 있어 많은 비율의 노인들이 정년퇴직 후 20년 이상이나 역할상실의 상황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으며 이들은 또한 무엇인가 일거리가 부여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노인대상의 의식구

■ 특집 : 노인복지

조 조사에서 밝혀지고 있다.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인 조건이 젊은이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얻기에는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정책적인 지원 또는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 노인직종(老人職種)을 개발보호한다거나 노인직업훈련소 또는 노인 직업소개소 같은 것을 복지적인 관점에서 개설 운영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노인들의 사회참여 비율은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노인들의 당면문제인 교육, 소외, 무로함 등의 문제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

5. 결 론

사회구조가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노인들은 가정에서는 물론이

고 사회적으로도 정신적, 정서적으로 불안정요인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여러가지 상황이 겹쳐서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을 보다 안정되고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들' 스스로가 현대사회에 적응해 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동거하는 자녀들이 노인의 심정을 이해하고 정신적, 정서적으로 안정시켜 드리려는 배려만 있으면 노인으로부터 고독과 소외의식을 추방시킬 수 있다. 자신을 낳아서 길러주는 과정에서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온갖 고생을 하신 노부모님의 얼마남지 않은 여생을 마음 편하게 해드릴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도 머지않아 노인이 될 것이고, 실사 젊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터인데 이 기회에 모두가 다시 한번 반성해 볼 일이다. ■

이 달의 수증간행물

적십자병원지, 8권 2호(12월호), 대한적십자사

종합병원 간호원의 포도상구균 보균상태에 관한 연구, 최영애, 전남대대학원 간호학과 석사논문

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 반영된 건강교육 내용분석과 교사들에 대한 실태조사, 소향숙 전남대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논문

THI에 의한 간호원 및 여교사들에 대한 건강실태조사, 김기순, 전남대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논문

한국의 여성연구—현대의 부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81

한국의 영아사망률—최근 출산력조사 자료의 분석,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1

환자진료지침—보건의료원용, 보건사회부, 1981

1980년도 전국 회원실태조사보고서, 대한의학협회 조사연구실

1981년도 한국방사선기술연구회지, 제 4권 제 1호, 한국방사선기술연구회

1982년도 교육훈련계획, 보건사회부 국립사회복지연수원

看護技術, 제28권 제 3호(2월호)

American Journal of Nursing(12월호)

International Nursing Review(9, 10월호)

Nursing 81(12월호)

Nursing Life(11, 12월호)

Philippine Journal of Nursing, Vol. 11, No. 2(4~6월호)

Primary Health Care—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Nursing Activities Focusig on Infectious Diseases INFJ, 1981

The Australian Nurses Journal, Vol. 10, No. 12(12월호)

The Canadian Nurse(1월호)

World Health(9~10월호), WHO

22 대한간호 제21권 제 1호 통권 114호